



특집

Feature articles |

육계관련 분야별 산업 전망

2005년 배합사료 수급 및 가격 전망

1. 배합사료 수급전망

지난해 우리의 축산업은 2003년말, 2004년초 미국으로부터의 광우병과 동남아시아의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축산물 소비감소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산업 전반에 걸쳐 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 같은 외국에서의 가축질병이 오히려 국내 축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 축종 고루 예년에 보기 어려운 호경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축산업에 있어 가장 큰 자재산업인 배합사료산업은 톤당 200\$를 초과하는 옥수수를 구매하는 사상 유례없는 국제 사료원료 가격강세를 보이며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연초부터 배합사료 생산량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에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배합사료 예전됨에 따라 사료산업이 장기적인 침체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고조된 한해였다.

2004년 11월 누계로 사료협회에서 집계한 배합사료 총 생산량은 13,402,618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축종별 생산동향을 보면 전년에 비해 5.4% 증가한 비육우용 사료를 제외하고는 양계용이 2.5%, 양돈용이 4.1%, 낙농용이 5.9% 기타용 사료가 19.2%씩 각각 감소하였다. 2003년, 2004년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 배합사료 생산량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도 침체일로에 있는 국내 내수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축산물 소비가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축산물 수요 증가분은 수입으로 대체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2003년 3/4분기 이후 중국산 옥수수 수출금지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강세를 보여오던 원료가격이 2004년 하반기 이후 비교적 안정세로 들어서고 환율하락으로 인해 사료업체의 사업 환경이 호전되면서 11월에 4% 내외의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하였고, 12월 들어서도 농협을 비롯한 일부 사료회사들이 4~6%의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추후 추가적인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배합사료 가격인상이란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05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임시세

가 불투명하고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배합사료 가격안정과 생산증가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저곡가 추세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사료가격의 바탕 위에서 축산을 영위해 왔으나 2004년 상반기 이후 급등한 원료가격과 선임 시세의 폭등은 지난해 두 차례나 배합사료 가격 인상을 불가피하게 해왔고, 하반기 이후 다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가격의 불안정 추세가 지속되어지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2005년도 축산 및 사료업계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해 볼 때 2005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수요측면에선 축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공급측면에서도 환

율과 선임 등의 불안요인과 일부 사료용 소맥 등의 공급증가 등으로 원료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한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가운데 양축농민들의 사육심리를 위축시켜 배합사료 생산은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일본형 패턴의 배합사료 정체국면을 보이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2005년도 역시 사료생산이나 축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축산물의 제값 받기를 통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잉생산을 피해가며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점차 배합사료 생산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고, 축산물 가격도 지속적으로 호황 국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리라고 보여진다.

2005년의 배합사료산업은 현재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축산부문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사료회사들은 구매와 생산현장에서의 생산비 절감노력을 해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한 사료비 절감에 최

<표 1> 2004년도 배합사료 생산 (단위 : 천톤, %)

구분	2004.1~11월 (A)	2003.1~11월 (B)	누계대비 A/B(%)
양 계	3,483,075	3,573,077	97.5
양 돈	4,922,953	5,130,939	95.9
낙 농	1,488,990	1,581,817	94.1
비 육	2,758,542	2,617,695	105.4
기 타	749,058	927,162	80.8
계	13,402,618	13,830,690	96.9

<표 2> 주요원료 가격동향

(단위 : C&F US\$/톤)

구분	'02년 평균	'03년 평균	'04년 3월	'04년 6월	'04년 9월	'04년 10월	'04년 12월
옥수수	106.0	117.1	161.8	182.8	184.2	171.2	148~153
소 맥	100.2	109.6	169.9	186.8	181.4	168.3	169
대두박	211.4	216.2	291.3	336.6	369.9	354.6	248~250
채중박	122.0	126.8	191.5	164.1	178.3	183.5	156~162
면실박	123.4	143.1	203.5	208.7	194.6	177.7	144~147

※ 2002년~2004년 10월까지의 통관가격, 2004년 12월은 구매가격 기준임.

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축농민들도 이같은 여건을 잘 감안하여 지나친 입식을 피하고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여 2004년과 마찬가지로 축산물 제값받기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배합사료 가격 전망

2003년 3/4분기 이후 중국의 곡물 수출금지 조치와 주요 수출국들의 곡물 수출예상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겹치면서 세계 사료원료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중국의 지속적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의 영향으로 세계 화물수요가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해상운임이 폭등한 것이 국제 사료원료 가격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여러 요인들에 의해 사료생산원가가 급등하게 되었고, 2003년 말과 2004년 상반기중 두 차례나 큰 폭의 배합사료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축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2004년 큰 폭의 사료가격 인상의 배경을 보면 지난해말 이후 세계 사료곡물 수급동향이 예년에 비해 전체적인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국내 소비 등 총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생산증가율이 소비증가율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재고 및 재고 비율이 크게 떨어져 국제 곡물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사료곡물의 수급불균형과 함께 지난 10여년 동안 안정세를 보여왔던 해상운임이 폭등하면서 이로 인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였다. 이 같은 해상 선박운임(freight)의 상승은 전례없던 일로 중국의 경기호전으로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수요가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선박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국내 사료제조업체의 원료구매가격이 2003년 평균수입가격에 비해 원료에 따라 30%~75%까지 상승하기에 이르렀고, 제조비용 중 원재료비 비중도 85%에 이르는 등 사료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급등세를 보여왔던 원료가격과 선임시세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환율도 안정을 찾음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하였으나 배합사료 원가의 주종을 이루는 옥수수가격은 여전히 톤당 160불대를 넘어갈 만큼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이후 기히 구매된 고가 원료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도 완전히 소진되지 않음에 따라 가격인하시기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양축농가들로부터 배합사료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주장이 거셌으며, 사실상 하반기 이후부터는 필드에서 사료회사들간에 할인판매가 이루어졌고, 11월 들어서면서부터는 4% 내외의 공식적인 배합사료 가격인하를 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도 하반기 이후 예기치 않았던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도 상승하면서 환율이 크게 떨어지자 물량감소로 고전하던 사료업체의 수익성도 크게 호전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12월들어 4~6%의 추가적인 가격인하가 가능하기에 이르

렸다.

하지만 2004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사료업체의 환경이 다소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배합사료의 물량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곡물가격을 비롯한 선임시세가 불안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료곡물은 농산물의 특성상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 사료원료 가격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해상운임의 경우도 향후 수년간 중국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사료원료 가격의 강세기 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료 가격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환율의 경우 앞으로도 당분간 달러 약세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하락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출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히려 환율상승으로 반전될 경우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이미 사료업체의 일각에서는 내년도 환율 상승에 대비하여 사료업체에서도 서둘러 가격안정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료별로 특정국가로 독점화 되어 가고 있는 원료 수출국을 다변화하여 원료수급 및 도입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산 옥수수나 캐나다산 사료용 소맥 등 대체원료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선진 선물거래 기법의 활용을 통한 고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

도 분산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유통비용의 절감 등 기업자체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비용도 절감해나가려 하고 있다.

산업계의 지구노력과 아울러 현재의 고비용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국내 부존 사료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입해야만 하는 사료원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축산물 수입으로 위축되고 있는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양축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료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나서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공제율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지금의 세제정책은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에 부응하면서 국내산업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산업에 대한 간접지원(세금감면 등)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은 이에 부합되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축산업 지원정책으로 판단된다.

2005년에는 배합사료의 원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등 세제면에서의 정책개선이 이루어지고 현재 사료용도로서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일부 사료원료에 대한 제한요인들도 시급히 없어지는 한해가 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C

홍순찬 팀장
(사)한국사료협회